

통전적 신앙형성을 위한 교리교육의 재개념화*

장신근(장로회신학대학교/교수)

sgjang@puts.ac.kr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포함하여,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다양한 위기와 도전들에 직면하여 대안적 형태의 교리교육을 모색한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교리교육은, 최근 교리교육에 대한 관심에서도 드러나듯이, 수직적 차원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좁은 의미의 교회 중심적 그리스도인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와 공공성의 상실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좁은 의미의 혹은 사사화된 제자훈련으로서의 교리교육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리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리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수하거나,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반복하고 암송하는 방법이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교육은 기독교교육학 가운데 가장 고루하고 뒤떨어진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오늘의 교리교육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교리교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이론에 기초하여 통전적 신앙의 형성을 지향하는 교리교육을 목적, 교리개념, 체제, 내용, 방법론과 방법 등으로 나누어서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존 교리교육의 재개념화를 시도한다.

* 이 논문은 2021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제어 》

교리교육, 교리, 하나님 나라, 통전적 신앙, 재개념화

I. 들어가는 말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외적으로 현재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인류의 반생명적 삶과 행위가 임계점에 도달하여 발생한 복합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생태계를 착취하고 파괴한 결과 다양한 기후재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인류는 기술 혁명(인간 향상기술)과 트랜스휴먼을 통한 호모 데우스를 꿈꾸고 있고, 반생명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지구적으로 확산됨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외적 도전과 함께 한국교회는 그 동안 교회 성장을 뒷받침해온 변영신학과 신앙의 개인주의화와 사사화 현상으로 인하여 대사회적인 소통능력과 공공성의 상실로 계속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며, 기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적 노력으로 대안적 형태의 교리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온 교리교육은 수직적 차원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좁은 의미의 교회 중심적 그리스도인 만들기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와 공공성의 상실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좁은 의미의 혹은 사사화된 제자훈련으로서의 교리교육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리교육의 내용도 고전적인 요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들을 그대로 텍스트로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

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교리의 내용을 오늘의 삶과 연계하는 일도 소홀하게 되었다. 교리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리 내용을 학습자에게 전수하거나,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반복하고 암송하는 방법이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교육은 오늘날 기독교교육학의 여러 영역 가운데 가장 고루하고 뒤떨어진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오늘의 교리교육의 현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교리교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이론에 기초하여 통전적 신앙의 형성을 지향하는 교리교육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기존 교리교육의 재개념화를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교리(doctrine)”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선언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동시에 더 넓은 의미에서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책임 있는 사유행위”를 지칭하기도 한다(고원석, 2015, 204).

II. 최근 개신교 교리교육의 현황과 특징

최근 보수적인 교단을 중심으로 교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도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필자가 최근(2021년 10월 20일)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교리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전체 연관도서는 132권, 그 가운데 국내도서(번역서 포함) 53권, 외국도서는 38권, eBook은 41권이였다. 국내도서 가운데 불교와 가톨릭을 제외하고 개신교에서 발행한 교리교육 관련 도서는 약 40여권이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최근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리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1. 개신교 교리교육의 현황: 최근 교리교육 도서를 중심으로

첫째는 교리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다루는 도서들이다(이성웅, 2010; 이정규 외 4인, 2016; 정두성, 2016; 정설, 2015; 정준모, 2004; Fesko, 2021; Johnson, 2015; Van Dyken, 2012). 여기에 해당하는 도서들은 개신교가 그동안 교리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결과, 강력한 신앙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반성하면서 주로 교리교육의 중요성과 가치, 교리교육의 역사, 교리교육의 원리와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교리교육의 사례를 다룬 책에서는 최근 다양한 현장에서 또한 발달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교리교육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최근 교리교육의 흐름을 현장감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는 연령별 교리교육 교재이다(유아·유치·아동: Provencher, 2000a, 2000b, 2000c; 황신기 2001;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200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2011; 청소년: Ware, 2011; 박양규, 2017; 최창수, 2017; 성인: 손달익, 2012; 이성희; 2014, 정요석, 2015, 호태석 외 2인, 2015; Luther, 2017; 이성호, 2017; 김태희, 2018; Gospel Coalition & The Lidymar Presbyterian Church, 2018; 흥원표, 2020; 세대통합: 임경근, 2015). 이 유형은 3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서들은 교리교육의 내용을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세대통합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교리교육 교재들이다. 개인들에 의하여 출판된 도서도 있고, 교단 출판부나 교육부에서 출판된 것들도 있다. 학생용과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용 지침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과 청소년 교재에는 그림, 만화, 공작 활동, 설교, 마인드맵, 동영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리교육을 시도한 교재들도 있다. 성인 교재의 경우 대부분 설교, 소그룹 공부, 구역공부, 제직 훈련, 새신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서들이다. 청소년 교재 가운데는 교리교육의 주제와 인문교전을 연결하여 교리교육을 시도한 교재도 있다(박양규, 2017).

셋째, 교단 발행 교리교육 교재와 지침서들이다. 일차적으로 각 교단이 발행하는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편”인데 이는 교단 교리교육의 핵심 텍스트라 할 수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2018; 기독교대한감리회, 20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2019). 여기에는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인준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등의 전문 텍스트를 신고 있다. 종이책 뿐 아니라 교단의 총회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 또한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에 대한 신학적 해설서의 성격을 띤 책도 있다.

다음으로 개신교의 여러 교단 출판사와 교육부(국) 등에서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세례와 입교 준비를 위한 교재가 이 유형에 속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1993a, 1993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통합), 2011, 2013, 2018, 202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국내선교부편(통합), 2016a, 2016b;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합동), 2018). 이런 형태의 교재는 대부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내용보다는 단기간 교육을 위한 속성 교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사실 출판사에서 만든 교리교육 교재들보다 길이가 짧고 분량이 적은 편이다. 그 외 지역교회에서 소그룹 모임과 구역모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들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2. 최근 개신교 교리교육 도서에 대한 평가

최근 개신교에서 출판된 이상의 다양한 교리교육 도서들의 장점들과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교리교육 도서들이 개신교의 전통적인 신앙교리서를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다. 그 가운데 1563년에 출판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1647년에 출판된 『웨스터민스트 신앙고백(소요리문답)』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리교육 텍스트였다. 『제네바 요리문답서(1542)』 혹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1559년 최종판)』도 간혹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리교육 도서들은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매일, 혹은 주간 단위로 공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신앙고백서들은 개혁신교회의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서이지만 사용되는 단어, 개념, 문장들이 수백 년 전의 것이므로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교육에서는 이러한 것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리 내용을 오늘의 개념과 용어로 풀어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교리교육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최근의 신앙고백서 혹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성적 상황을 반영한 한국인들에 의하여 작성된 신앙고백서를 텍스트로 삼는 도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장통합의 헌법에는 한국인들에 의하여 작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86)”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2002년)”가 들어가 있는데 이에 기초한 교리교육 도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나온 신앙고백서를 사용한 교리교육 도서도 나와 있지 않다. 신앙고백이 상황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17세기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에는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이슈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특히 공적신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리교육 도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교리와 교리교육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인지적이고 명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교육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신앙의 4가지 차원(신념, 관계, 헌신, 신비) 가운데 신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리교육을 인지적이고 명제적인 차원에만 국한하는 것은 교리교육의 협소화를 초래한다. 그 이유는 교리교육은 위에서 지적한 신앙의 여러 차원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앙에 있어서 신념, 관계, 헌신, 신비 등의 차원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교리에 대하여 주로 인지적이고 명제적으로만 접근하는 경우 교리에 대한 태도가 형식화되거나 이데올로기화될 위험성이 많아진다. 즉 교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해석, 전유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리의 내용을 인지적으로 파악하고 형식적으로 그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교리와의 진지한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교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삶에서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객관적 명제들의 집합이 되어 버리고, 그 결과 교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결여되어 교리의 문구 자체를 절대시하게 된다.

신앙의 핵심 내용을 명제적인 형태로만 정리하여 학습할 경우 성경의 역동적인 드라마적 요소와 이야기적 요소가 제대로 전달되거나 경험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복음의 내용이 추상화되고, 건조해지고,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톰 라이트(Tom Wright)의 견해를 통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교리교육 방법의 문제로, 교사 중심의 일방적 강의법과 학습자들의 내용 수용을 중시하는 방법이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교수-학습의 창조성, 상호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법은 많지 않고, 여전히 명시적, 암시적으로 전달과 암송 중심의 방법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리 내용에 대한 암송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간의 암송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깨달음의 차원이 반복되고 축적되어 자연스럽게 암송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리 조항에 대한 인지적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 창조성, 상호성, 주체성에 기초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많은 교리교육 도서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충실하게 잘 준비된 강의식 수업을 통하여 교리의 내용을 충실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교사와 학습자가 일대일의 관계에서 멘토링이나 코칭을 통하여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차원의 방법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교리교육이 단순히 명제로 만들어진 교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머무르지 않

기 위해서는 이처럼 일대일의 상호성, 인격적 관계, 돌봄을 중시하는 방법들이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교사의 역할이 “학습을 설계하고 조언해 주는 디자이너”(이주호 외, 2021, 165-69)라고 한다면 오늘의 교리교육도 이처럼 교리학습을 설계하고 조언해 주는 디자이너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들의 주체성 키워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매체 활용의 부족도 이러한 교리교육 책들이 지닌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책들은 오늘의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문자로 된 텍스트 위주의 교리문답 책들과 비교하면 최근에 출판된 교리교육서에서는 그림, 만화, 노래, 공작, 마인드맵 등과 같은 방법들이 부분적으로는 활용되고 있지만, 오늘의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매체를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러 교리교육 현장들의 특징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현장들 사이의 연계성 부족이다. 위에서 살펴본 교리교육 교재들의 경우 대부분 교회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 많고,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것들이며, 학교와 사회 현장 등을 고려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한 가정과 교회의 연계를 통하여, 교회가 가정에서의 교리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다룬 책들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는 가정 교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들을 위한 교재의 부재와도 연결된다. 교회에서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를 위한 이론서, 지침서, 해설서 같은 교재도 많지 않아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정-교회-학교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교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도서들도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교리의 재개념화: 교리개념에 대한 대안적 접근들

오늘의 교리교육에 대한 재개념화를 위하여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인지적 명제적 차원의 교리개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호레이스 부시넬, 도로서 세이어즈, 더글라스 홀, 톰 라이트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 교리개념에 대한 대안적 이해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시넬: 진리 대응론을 넘어서는 교리 이해

호레이스 부시넬(Horace Bushnell, 182-1876)은 오랫동안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으로 인하여 주로 “미국 종교교육의 아버지”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셸턴 스미스(Shelton Smith)와 같은 종교교육학자와 최근에는 로저 올슨(Roger Olson)과 같은 신학자들에 의하여, 뛰어난 신학 저서들을 남긴 “진보적 정통주의” 혹은 “중재 신학자”로 재평가되고 있다. 그는 1848년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비매개적으로 경험”한 개인적 사건을 통하여, 또한 상상과 은유를 교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새뮤얼 콜리지(Samuel Coleridge)의 영향으로, 종교와 기독교에 대하여 명제적·교리적 관점보다는 경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Olson, 2021, 356-57).

부시넬과 콜리지에게 있어서 종교란 일차적으로 정보(information)가 아니라 변혁(transformation)이었다. 이들은 종교의 본질을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라고 보았다(Olson, 2021, 364). 부시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참되게 아는 방법은 의견이 아니라 사랑이다”(Olson, 2021, 364). 또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생각을 명제에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에 맡기는 것이다”(Olson, 2021,

364).

그러나 부시넬이 결코 신조와 교리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먼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리가 굳어져서 이데로 올기화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동시에 그의 목표는 교리들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모형들로, 복합적인 은유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Olson, 2021, 365).

부시넬은 또한 “모든 교리가 단순히 정적주의적 명상과 영적 경험에 의해 대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교리의 내용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Olson, 2021, 366). 예를 들어, 성육신 교리의 경우, 성육신에 대한 추측을 멈추고, 이것이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신비임을 인정하고 “그[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단순한 통일체, 한 인격, 신-인으로서 서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중 혈통의 특질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한다고 역설한다(Olson, 2021, 366).

콜리지의 영향으로 부시넬은 “삶의 혼육에서 가장 의미있고 숭고한 모든 것”은 형이상학적 영역보다 미학적 영역에, 문자적 영역 보다는 시적, 은유적 영역에, 개념적 영역 보다는 경험적 영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Olson, 2021, 368). “송영적이고 윤리적인 것에서 분리된 순수하게 지적인 것은 죽이는 반면, 경험적인 것, 상징적인 것, 은유적인 것은 살린다”(Olson, 2021, 368).

부시넬은 “말과 명제가 실재를 있는 그대로 직접 기술한다는” 진리대응론을 넘어서는 언어이론에 기초하여 신학과 교리를 이해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에 관해 지나치게 지성화되고 형이상학적 사고와 담화에 의해 정복되고 축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였다(Olson, 2021, 369).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학이 사실에 관한 문자적 주장들로부터 논리적 연역들을 이끌어 내고 체계화하는 과학”이라고 본 당시의 19세기 신학자들을 비판하였다(Olson, 2021, 370). 이러한 언어이론에 기초하여 부시넬은 “모든 신조적 공식과 교리가 기독교 경험과 계시의 더 나은 표현들에

비추어 언제나 수정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Olson, 2021, 372).

부시넬이 교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도하려 했던 것은 “기독교적 포괄성,” 즉, “외관상 반대되는 신조 전통을 연합시키려는” “에큐메니즘 기획”이었다(Olson, 2021, 374). 그의 의도는 분열된 개신도들을 재결합시키고 심지어 가톨릭 교인과 개신교인까지도 재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신조와 신앙고백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조가 그 자체로 성경과 하나님의 다면적 성격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 한 신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주장하였다(Olson, 2021, 375-76).

부시넬은 당시 감정 중심의 부흥운동이 지닌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신학과 교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독교 신학과 사변적 활동이 있어야 삶에 억제와 균형이 제공되어 환영이나 공상이나 환각에 빠지지 않는다”(Olson, 2021, 376).

2. 도로시 세이어즈: 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한 드라마적 접근

20세기 영국의 소설가와 희곡 작가이며 기독교 사상가인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 1893-1957)는 『도그마는 드라마다: 문학적 상상력과 교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교리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그녀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교회가 현대 문명 가운데 존재하면서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ayers, 2017, 12).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여 기독교 신앙을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또한 총체적으로 위협에 처해있는 현대 사회를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추’해낸, 신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진단한다(Sayers, 2017, 13). 세이어즈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 이야말로 역사상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크게 뒤흔든 흥미진진한 드라마다.

도그마는 드라마이다” (Sayers, 2017, 23).

그녀는 당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이유를 “신학을 너무 고집해서가 아니라 신학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Sayers, 2017, 54). 세이어즈에 의하면 “기독교는 먼저 우주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며 “철저하고 비타협적인 현실주의에 깊이 뿌리박힌 탄탄하고 엄밀하고 복잡한 교리다”(Sayers, 2017, 52). 이처럼 교리의 중요성을 전제하면서 세이어즈는 두 가지를 시도한다. 첫째, 기독교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가르쳐야 하는데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만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 즉, “인간 사회의 합리적 구조를 받쳐주는 주춧돌과 같은 것들”을 선별하여 오늘의 개념과 언어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ayers, 2017, 54).

계속해서 세이어즈는 도그마가 삶과 연관성이 없으며, 적실성이 없고, 신학자들의 지적 놀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독교 도그마가 삶과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과 상관이 있는 것일까?”라고 강하게 반문한다. 도그마와 삶의 상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도그마는 철저하게 삶과 상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교적 도그마는 “인생과 우주의 본질에 관한 교리들의 진술”이라는 것이다 (Sayers, 2017, 57). 교사와 설교자는 “교리란 신학 위원회가..설전을 즐기면서 선협적으로 창안한 일련의 자의적 규정이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Sayers, 2017, 61).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면 도그마가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 도그마를 소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소개받은 것도 역시 전문적인 신학용어이며 일상생활과 상관있는 말로 번역된 도그마가 아니었다(Sayers, 2017, 58). 또한 도그마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싸움과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세이어즈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첫째, “기독교를 걸림돌이라곤 전혀 없는 매력적이고 인기

좋은 그 무엇으로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Sayers, 2017, 63). 둘째, “기독교 교단들 사이에 정말 에큐메니컬한 교리들에 대해선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Sayers, 2017, 64).

그녀는 교리를 독자영감적으로 이해하는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면서 교리는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분명 창조(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의 참 본성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사실을 알려”주지만, 이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기에, 언제나 다시 그리고 새로이 표현될 수 있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ayers, 2017, 1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린 창조성을 망각하고 과거의 문자로 교리를 답습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녀는 이러한 보수적 그리스도인들 뿐 아니라, 또한 기독교의 언어와 교리를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는 현대의 지성인들을 향해서도 신학적 언어가 지닌 문학적 성격을 강조한다. “신학적 언어(교리)는 시적 상상력의 세계에 속한다. 이 상상의 언어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기독교는 “우주에 대한 합리적 설명”(Sayers, 2017, 52)이다. 다만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 그 표현 방식으로 직유나 은유를 선택할 뿐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신학과 문학이 서로 만나게 된다(Sayers, 2017, 해설, 13).

3. 더글라스 홀: 신앙이 전제된 교리

캐나다 출신으로 북미의 대표적 신학자인 더글라스 홀(Douglass Hall)은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부정신학의 눈으로 바라본 그리스도교』에서 전통적으로 동방 신학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부정신학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즉, “그리스도교는 무엇이 아닌가? 무엇이 그리스도교의 부차적 요소이고 무엇이 핵심 요소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신

학적 입장에서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라는 논의를 시작한다.

홀은 그리스도교는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신앙을 성찰하는 학문 활동의 산물로서 교리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정한다(Hall, 2020, 168).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교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리는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그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만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집중되고 일반인들은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특정한 사람들이 교리를 연구하게 된 배경도 존재하지만 이들만이 교리를 연구하게 되면 일반인들에게는 교리가 멀어지고 마침내 짐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홀은 교리에 접근함에 있어서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교리가 종교의 ‘집’이 아닌 신앙이 자아내는 망의 일부로서 가능할 때”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Hall, 2020, 151). 즉, “교리에 참된 관심을 두고자 한다면 그 바탕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없다면 교리는 그림자, 혹은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Hall, 2020, 163-64). 계속해서 그는 신앙과 교리의 상호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신앙은 참된 교리 연구, 성찰, 대화의 필수적이고 실존적이며 1차적인 토대이다. 그리고 참되고 신실한 교리는 신앙의 결과물, 2차 산물이다.....”(Hall, 2020, 165).

신앙의 공동체와 신실한 개인에게 교리는 외부(혹은 내부)의 권위가 부과하고 자신은 마지못해 동의하는 규율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리는 신앙에 필수적이며, 신앙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쁨의 산물이다(Hall, 2020, 166).

홀은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한 위에서 아래를 향한 교리의 공표보다 평신도들이 교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에게 교리를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교회와 그 주변 환경에서 교리적 탐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Hall, 2020, 167). 이러한 맥락에서 훌륭한 교리교육의 환경은 인격적 대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토의와 멘토링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Hall, 2020, 168).

4. 톰 라이트: 성경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신조읽기

바울 신학에 대한 새 관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저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4부: 신조, 정경, 그리고 복음서”에서 성서(정경)와 교리의 불가분리의 상보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는 먼저 교회가 오랜 기간 정경에 비추어 신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신조에 비추어 정경을 읽은 결과로, 또한 하나님 나라보다 신조를 우선시함으로써 복음의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첫째,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제거되고, 둘째,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제대로 파악해낸 나라 개념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성육신과 죽음을 그 나라 개념과 통합”하지 못했다(Wright, 2013, 368). 예를 들어, 사도신조의 경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백하고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곧장 넘어가 버림으로서 그 사이의 공생애에 관한 내용은 무시되고 복음서의 내용은 축소되어 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트는 정경을 신조에 비추어 읽지 말고 반대로 정경에 비추어 신조를 읽어야 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서 자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복음서들에 포함된 그 나라와 십자가가 통합된 메시지로, 더 정확히 말하면 성육신, 나라,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 모두와의 관련성 안에서 주의 깊게 이해된 통합된 메시지로 돌아가야 한다”(Wright, 2013, 369). 계속해서 라이트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Wright, 2013, 369).

우리가 기독교 정경 전체의 핵심과 균형 잡힌 요점을 형성하는 복음서로 시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온 세계의 왕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조들로 돌아갈 수 있고, 완전한 다른 의미에서 신조들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사복음서를 통해서 신조를 새롭게 이해할 때 소위 그리스 철학의 배경하에 만들어진 “니케아 기독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IV. 교리교육의 재개념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교리교육의 재개념화를 위해서는 교회사와 기독교교육의 전통을 통하여 교리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관계로 각 전통과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이론/합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교회사전통에서의 교리교육

오늘의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교리교육은 1) 이방인들의 개종, 2)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출생과 신앙교육, 3) 이단 세력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즉 교회 외적 도전과 교회 내적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교리교육이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신약성경이나 기독교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즉시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였으나 개종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2세기 후반부터 체계적인 세례 준비교육이 시작되었고 3-4세기경에는 각 교회별로 세례준비 과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다(정두성, 2016, 68).

오늘의 교리교육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교리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교리교육을 단순한 기독교의 신념 체계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이단의 도전에 응전하고 전 교인들이 참여하는 일련의 “총체적 교육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먼저 기간에 있어서 지역이나 시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2-3년간의 교육 기간을 통하여 지원자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증하며,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도하고 돌보았다. 지원자의 입문부터 엄격하게 자격 심사를 거쳤고, 윤리적, 신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경우 이를 버려야 입문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교인으로서의 입문이 허락되면 원입교인(audientes)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공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었으나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Gonzalez, 2019, 32). 그리고 세례를 받기까지 예배, 기도회, 교리설교, 도덕적 지도 등 일련의 지도와 돌봄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인으로 등록 후 2-3년 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받은 후보자들(catechumens)은 세례를 받기 위해 사순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교육에 세례 적임자(petitioners)로 참여하기 위한 시험을 거쳤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리적 지식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이었다(정두성, 2016, 61). 즉, 교리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삶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그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을 통과한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세례가 허락되었다. 세례를 받은 후 이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았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교리교육은 새 신자들의 교회 정착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이단의 사상에 대항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교회의 필사적 사역이었다. 또한 이는 교역자를 포함해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전 교회적 신앙 훈련 프로그램이었다”(정두성, 2016, 57).

종교개혁 전통에서의 교리교육은 중세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와 평신도의 무지, 그리고 종교개혁 사상의 강화라는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다. 루터는 1528년 작센지방을 방문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경과 교리에 대하여 무지했는지를 한탄하면서 간결하면서도 쉬운 교리문답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Luther, 2017, 서문, 25-38).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 복음의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을 1529년에 출판하였다. 『소교리문답』의 서문에서 우리는 루터가 교리교육서를 만든 배경과 목적, 핵심 내용, 방법 등을 알 수 있다(Luther, 2017, 25-47).

- 교리문답서가 나온 이유? 태만한 목사와 설교자 때문!
- 교리문답서를 사용하라. 어린아이 같은 학생이 되어 평생 교리문답을 배우라!
- 매일 읽고 대화하고 생각하라. 그때마다 성경의 기쁨이 함께할 것이다.
- 교리문답서에 인용된 말씀은 악마를 이길 무기다.
- 교리문답서는 성경의 요약본이다.
- 교리문답서를 읽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고민하라.

(초판 서문)

- 교리문답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 교리문답서의 세 가지 필수 사항: 십계명, 신조, 주기도문
- 위의 세 항목은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야 한다.
- 위의 다섯 항목(십계명, 신조, 주기도문, 세례, 성만찬)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시편, 찬송, 교리 설교로 깊이를 더해야 한다.

이처럼 『소교리문답』은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도록 훈련하여 위급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위하여, 『대교리문답』은 성인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량에 맞게 구분하여 함께 큰소리로 읽고, 그 후 개념과 역사적 정황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정기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Luther, 2017, 해설의 글, 20).

칼뱅은 제네바에서 교회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였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기 위한 올바른 교리문답교육이었다. 칼뱅과 동료 파렐은 제네바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기초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 위하여 3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는 바른 신앙고백으로, 이를 위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와 구별되는 제네바 신앙고백을 작성하였다. 둘째, 교회 헌법으로, 교회와 예배의 조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셋째, 교리문답 작성이다. 이를 위하여 칼뱅은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하였다(박경수, 2019, 335-36).

칼뱅은 『기독교강요』 초판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1차 제네바교리문답서』를 붙여(1537)와 라틴어(1538)로 출판하였으나, 어린이들에게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 주제별 접근 방법보다는 전통적인 문답방법을 활용한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서』를 붙여(1542)와 라틴어(1545)로 출판하였다(박경수, 337). 칼뱅은 『제2차 제네바교리문답서』를 출판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박경수, 2019, 338-39).

초대교회의 교리문답 교육을 회복하여, 그 가르침을 10-15세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시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연합되어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하여 신앙의 핵심을 한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교리문답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교 교리로 올바르게 키우고, “신앙의 일치가 우리 가운데서 빛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칼뱅은 “동일한 교리문답을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친교의 엄숙한 상징”이라고 보았고, 교리문답은 “참된 교회의 보존과 신앙의 대 잇기를 위한 씨앗과 같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박경수, 2019, 341-42).

칼뱅은 『제네바교리문답서』의 전체 내용을 55장으로 나누어서 한 주에 한 장씩 교리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도록 구성하였다(박경수, 2019, 340). 그리고 1541년과 1561년 제네바 교회헌법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매 주일 정오에 교회에서 교리문답을 배우도록 규정했다. 칼뱅의 제네바교리문답서는 이후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등에서 개혁교회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의 표준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박경수, 2019, 342).

2. 기독교교육학자들의 교리교육 이론

존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 III)는 카테키시스(교리교육)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의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앙문화화” 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그의 카테키시스 개념에는 형성(formation-shaping), 교육(education-reshaping), 교수(instruction-build)의 3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형성”은 신앙의 삶의 경험을, “교육”은 경험의 반성을, “교수”는 공동체적 삶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뜻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신앙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여 예전, 신앙의 이야기, 삶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고, 여기에서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신앙적 삶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이다(Westerhoff III, 1987, 591).

카테키시스는 단기간의 세례나 입교교육을 넘어서는 평생에 걸친 순례과정으로서 “귀속적 과정,” “탐색적 과정,” “통합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귀속적 과정”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의 이야기, 비전을 공유하는 단계로 정서적이며 비이성적 특징을 지닌다. “탐색적 과정”은 공동체에서 경

험한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올바른 믿음을 위한 믿음과 행동을 위한 실험과 탐색의 과정을 뜻하며, 지적, 합리적, 자율적, 독자적, 비판적 특징을 지닌다. “통합적 과정”은 직관적인 것과 지적인 것, 관상적인 것과 행동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지향한다(Westerhoff III, 1987, 300-301).

이처럼 웨스터호프에게 있어서 카테키시스는 전통적인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평생에 걸친 순례의 과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앙공동체에 소속되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믿음과 행동의 탐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향해 나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종말론적 순례의 여행이라 할 수 있다.

개혁신학의 전통에 서 있는 프린스턴신학대학원의 은퇴교수인 리차드 오스머(Richard Osmer)는 바울서신에 대한 성서 신학적 연구를 통하여 카테키시스, 훈계, 분별 등의 3가지 형태의 회중 교수사역을 제시한다. 이는 어느 시대의 교회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교육적 사명이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해석적이며 창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오스머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의 패턴에 기초하여 회중의 교수사역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부활하셔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라도록,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지향하도록 돕는 것이다(Osmer, 2007, 57-58). 그리고 고전 3-4장과 12-14장에 기초하여 교수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 혹은 “회중 형성”이라고 주장한다(Osmer, 2007, 70-73).

이상의 세례와 세움에 기초하여 오스머는 바울서신에 나타난 교수사역의 세 가지 과제를 카테키시스, 훈계, 분별 등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스머는 카테키시스를 교회(회중)의 세 가지 교수사역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이들을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총체적 평

생 교육과정으로 보는 웨스터호프와는 공통점도 있지만 구별된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기독교 전통이나 구약성서에 관한 것들을 해석과정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기독교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교수사역인 카테키시스는 “신앙교육”과 연관되어 있다. (훈계는 도덕교육, 분별은 영성교육과 관련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오스머는 카테키시스를 드라마적 모델에 기초하여 제시한다. 즉, 카테키시스는 “자신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드라마에 참여하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행되는 해석활동”이라는 것이다(Osmer, 2007, 464) 그리고 카테키시스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개되는 드라마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미션, 소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Osmer, 2007, 469). 카테키시스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전개 과정에서 “성서의 텍스트와 전승에 대한 해석,” “성령의 현재적 해석 활동에 대한 해석,” “회중의 그리스도 프락시스에 대한 해석,” “계속적인 창조에 대한 해석” 등을 포괄한다.

오스머는 이러한 바울의 세 가지 교수사역의 과제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1) 실천 프레임(회중형성), 2) 커리큘럼 프레임(회중교육), 3) 리더십 프레임(회중의 지도력), 4) 필그림 프레임(개인에 대한 회중적 지원) 등 네 가지 프레임과 연계시킨다.

V. 통전적 신앙 양육을 위한 교리교육의 재개념화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의 교리교육 현황, 교리에 대한 대안적 관점, 교리교육의 전통과 기독교 교육에서의 교리교육 이론 등에 기초하여 통전적 신앙을 양육하기 위한 교리교육의 재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1. 교리교육 목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통전적 신앙의 양육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의 교리교육은 좁은 의미의 신자, 제자, 혹은 청지기 양육을 목적으로 지향해 왔다.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역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에 열심히 헌신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소통과 섬김의 부족 현상은 이러한 교회 내적 사역 중심의 제자교육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대적 도전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기존 교리교육 목적의 재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오늘의 포스트모던적 다원주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초한 확고한 신앙적 정체성 형성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의 무신론자의 증가, 특히 청년 세대의 무신론자 비율의 증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독교의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이단들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 가나안 성도의 증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과 신앙의 통합, 특히 공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형성과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신앙의 양육을 요청하고 있다. 다섯째, 오늘의 여러 지구적, 시대적 이슈와 도전들(생태계의 위기, 경제적 양극화, 종교적 갈등, 세대 간 갈등,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과학기술의 도전 등)은 대안적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의 교리교육은 기독교의 진리를 진공 가운데에서 무시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지평에서 이상과 같은 다양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응답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안적이며 총체적 형태의 교리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통전적 신앙의 양육”이다. 통전적 신앙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수직적 차원(상승)과 수평적 차원(하강)의 균형을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 이에 기초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전적 신앙을 지향한다는 것은 동시에 신앙의 지·정·차원, 혹은 신앙의 신념, 관계, 헌신, 신비 등 여러 핵심 차원을 균형 있게 형성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2. 교리의 의미에 대한 재개념화

교리교육의 재개념화는 전통적인 교리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제로 한다. 부시넬, 세이어즈, 홀, 라이트 등이 제안한 것처럼, 기독교 교리는 진리를 언어로 정리하여 명제로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절대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야기적, 드라마적, 은유적, 상징적, 미적, 송영적 차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큐메니컬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며, 일상의 삶과의 연관성이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생명력 있는 확신에 찬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교리는 율법화된 무시간적 도그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리는 그 교리가 생겨난 시대적 상황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논리로 정리하여 공적으로 고백한 것이다. 즉 교리는 성서의 권위 하에 있으며 상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와 도전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는 대화적인 과정을 중시해야 하며, 교리교육을 정해진 교리(요리문답, 신조, 신앙고백 등)의 텍스트 자체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다양한 이슈들과 신학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교리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들 사이의 대화를 위하여 오늘의 여러 신학적 흐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를 교리교육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의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리가 지닌 변증적인 차원(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교리교육 체제의 재구성

교리교육의 재개념화를 위하여 기존 교리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일회성과 단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입문자교육과 웨스트호프의 총체적 카테키시스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입문을 위한 삶의 검증 - 개별적, 공동체적 훈련을 통한 철저한 후보자 교육 - 세례를 위한 최종 검증 - 세례 후 공동체에서의 돌봄” 등 초대교회에서 실천했던 입문자 교육과정은 적어도 2년에서 3년까지 지속되는 장기간의 교육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었다. 더 나아가 웨스트호프는 교리교육을 평생 지속되는 신앙의 여정 혹은 순례로 바라보고 신앙공동체가 상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돌보는 과정으로 보았다.

오늘의 대안적 교리교육은 먼저 평생교육 혹은 신앙적 순례의 관점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신앙공동체에서 출생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과정을 교리교육 혹은 카테키시스의 관점으로 포괄하고,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연령별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생교육 혹은 양육의 비전하에 유아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입교, 성인 세례 등을 위한 단기 혹은 중기의 교리교육 과정도 전체와의 균형 가운데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교인의 신급을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6세 이하), 아동세례교인(7-12세 이하), 세례교인(13세 이상의 입교인이나 13세 이상의 원입교인)”으로 새롭게 구분한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 교인들의 신급에 따라서 세례와 입교 전후의 교리교육 내용이 분리되지 않고 체계성을 살려 나가면서 점차 심도 있게 성인교육까지 평생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 유아세례의 경우 교리교육의 대상자는 당연히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교리교육 내용의 재구성

교리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리를 교리로 분리하여 다루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특히 사복음서에 기초하여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을 각 교리 항목을 위한 증명텍스트(proof text)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교리교육에서는 일차적으로 성경 전체를 구원의 드라마로 읽고, 해석하고, 그곳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리교육에서 사용되는 교리 텍스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단 헌법이 정하는 명시적 차원의 공식적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 등의 텍스트이다. 이러한 텍스트는 주로 (예장통합 교단의 경우)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교회, 국가, 선교, 종말” 등의 내용을 다룬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2019, 제5부). 교단 헌법에 정해진 것 외에도 교회사에 나타난 대표적 에큐메니컬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 등이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과의 대화를 위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예를 들어 1988년도 남북한 기독교 대표들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 예장통합의 “21세기 신앙고백서” 등)을 교리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교리교육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여러 도전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앙고백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통전적 신앙을 양육하는 교리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과 더불어 이러한 역사적 교리교육 텍스트들을 오늘의 언어, 어휘, 개념으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리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역사적 신조와 신앙고백들은 대부분 수 백년

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를 오늘의 언어로 새롭게, 여러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번역하고 해설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명시적인 차원의 텍스트와 더불어 통전적 신앙을 양육하는 교리교육을 위해서는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이며, 연속성을 살린 전체 커리큘럼이 준비되어야 한다. 유아기의 경우, 교리를 추상적 개념으로 가르치기 힘든 단계이므로 가정과 교회에서 기독교적 삶을 경험하고, 기독교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예배함으로 교리의 내용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독교적 삶의 경험, 이야기, 예배가 교리교육을 위한 중요한 암시적 커리큘럼이다. 특히 유아들의 1차적 신앙경험, 감탄, 경이의 경험은 교리에 대한 인지적, 혹은 언어적 가르침보다 우선해야 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후에 명시적 교리의 내용이 내면화되고 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도, 예배, 교회, 십자가 등 기독교의 기초 이미지들과 개념에 친숙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양금희, 2005, 215-28).

아동기와 청소년기도 세례자 부모에 대한 교리교육도 중요하지만, 유아기는 명시적 차원의 교리교육이 불가능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리교육이 더욱 강조된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신앙교육적 책임,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 입양, 언약공동체 및 신앙공동체로서의 가정 개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기의 경우 신앙교육의 핵심 내용은 “신앙공동체 경험,” “기독교 전통 경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경험” 등인데, 이러한 경험은 교리교육의 암시적 커리큘럼이다(양금희, 2005, 228-43). 보다 명시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지평 안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등 기초 교리가 핵심 내용으로 눈높이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핵심 교리들이 내면화, 체화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최근 교단별로 새로 신설되고 있는 아동 세례를 위한 집중적인 교리교육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통합), 2021).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하여 중요한

세례, 입교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 교리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입교교육을 위하여 이들의 문화와 지적 수준에 적합한 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화적 성격을 지닌 교리교육 내용이 준비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교리교육에서는 일상적 삶의 이야기와 성서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이들의 지적인 요구를 감안하여 신앙적 질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성인기의 경우, 먼저 초기, 중기, 후기 등의 연령구별 없이 교리의 전통적 순서에 따른 성인 공통내용을 구성하여 난이도만 구별하거나, 발달 단계별 특징과 현장을 고려한 차별화된 내용으로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단계별 발달과제와 이슈, 가정, 교회, 직장, 사회 등 삶의 현장들과의 관련하여 삶-내용-삶의 순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 새 신자의 경우 아동기와 청소년기 보다 장기간을 통하여 성서와 교리 내용을 균형 있게 잘 구성하여 제시하고, 교육내용이 체화되고, 전유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멘토링, 상담, 기도 등의 개별적인 지원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각 단계의 암시적, 명시적 교육내용들은 웨스트호프가 제시한 것처럼 형성, 교육, 교수의 3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생애주기별로 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교리교육 방법론과 방법의 혁신

인지적, 명제적 지식의 일방적 전달, 전수, 암송의 특징을 지닌 기존 교리교육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방법론적으로 성찰적이며, 해석적 접근이 요청된다. 통전적 신앙의 양육을 지향하는 교리교육은 삶-교리-삶의 방법론에 기초한다. 즉, 교리 주제를 다룰 때 학습자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교리로 나아가고 다시 이를 삶에서 실천하고 성찰하는 해석학적 순환

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학습자의 삶의 이야기와 교리는 항상 대화적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통전적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는 교리교육을 오스머의 주장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석활동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서, 성령의 활동, 교회의 실천,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등을 해석해 나가는 능력을 양육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원석도 “카테케시스(교리문답 교육)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인간 세계를 향해 들려지고 메아리(공명/共鳴) 치게 하는 해석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고원석, 2015, 204-205).

교리교육 방법 혹은 교수-학습의 전략적 차원에 있어서는 먼저, 신앙의 4가지 차원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즉 신앙이 지닌 신념의 차원인(앎), 관계의 차원(공동체), 헌신의 차원(실천), 신비의 차원(초월)을 교리교육 방법에 균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교리 교수-학습방법에서 다양한 인식론(영성적 인식론, 해석학적 인식론, 이야기적 인식론, 예전적 인식론, 몸의 인식론, 예술적 인식론, AI 인식론 등)에 기초한 방법들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양금희, 2021).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전달과 암기식은 최소화하고 이야기, 대화, 토론, 예술적 방법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교리교육방법이다.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과 오프라인을 조화롭게 융합시켜서 상호적이며, 대화적이고, 창조적인 교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유재덕, 2020, 27).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하여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초현실적 사고와 다양한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교리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희영, 2021, 389). 예를 들어, 교리교육의 핵심 텍스트인 성서를 한편의 생생한 드라마로 체험하도록 해 주고, 교리내용을 가상 게임으로 익히게 하고, 또는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를 작성한 역사 속의 인물들과의 가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6. 교리교육 현장들 사이의 연계

신앙교육 현장들 사이의 분리가 온전한 신앙양육을 방해한다는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지적처럼, 통전적 신앙을 양육하는 교리교육에서는 다양한 현장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부모들의 삶과 명시적 가르침을 통하여 성육신적이며 장기적인 교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각 가정의 부모를 일차적인 교리교사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리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전적 신앙을 양육하는 교리교육은 일상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까지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성중, 2020, 51-53). 예를 들어, 학교와의 연계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동선에 관한 개념과 가치들을 교리교육을 통하여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관점과 연계하여 재해석하고 심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질 때 교리교육은 시민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I. 나가는 말

교리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기독교교육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소외된 영역이 되어버렸다. 물론 최근에 교리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여전히 전통적인 교리교육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통전적 신앙을 지향하는 가운데, 교리교

육에 대한 부분적 개선보다는 목적, 시스템, 내용, 방법, 현장 등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재개념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첫째, 교리교육의 목적은 좁은 의미의 제자 양육 혹은 교인 만들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통전적 신앙의 양육이어야 한다. 둘째, 교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야기적, 드라마적, 은유적, 상징적, 미적, 송영적 차원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리의 에큐메니컬 기능과 일상의 삶과의 연관성 등이 회복되어야 한다. 셋째, 교리교육은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평생교육 혹은 신앙적 순례의 관점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교리교육의 내용은 일차적으로 성서의 구원의 드라마이며, 그 다음으로는 공인된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 등이다. 양자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이며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의 한국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앙고백도 교리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내용들은 발달단계별로 학습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체계화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리교육은 방법론적으로는 성찰적이며, 해석적이어야 하며,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지·정·의, 신앙의 여러 차원, 통전적 인식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의 디지털 미디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여섯째, 교리교육에서는 다양한 현장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정-교회의 연계가 일차적이며, 학교와 시민사회와의 연계도 요청된다.

본 연구는 교리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 작업에서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유아세례(부모대상 교리교육), 아동세례, 입교, 성인세례 등에서의 교리교육 내용을 보다 더 세분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과 통전적 인식론에 기초한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들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처한 오늘의 한국교회가 통전적 신앙을 양육하는 역동적이고 창조적 교리교육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 고원석 (2015). 교리문답의 교수학적 가능성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3, 199-227.
- [Koh, W. S. (2015). A study of didactical possibility within the Protestant Catechism.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4, 491-518.]
-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목회연구팀 (2021). 온라인 교육목회와 교리교육. **교육교회**, 507, 45-49.
- [Educational Ministry Team of Christian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PUTS (2021). All-line educational ministry and Catechism. *Educational Church*, 507, 45-49.]
- 기독교대한감리회 (2019). **2019 교리와 장경**. 서울: KMC.
- [The Methodist Church of Korea (2019). *2019 Doctrine and discipline*. Seoul: KMC.]
-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2007). **만들며 고백하는 어린이 사도신경, 아동부 학생용 교리교재 시리즈 2**.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 [Department of Education, The Methodist Church of Korea (2007). *Creating and confessing the Apostles' Creed for the elementary kids (Vol.2)*. Seoul: The Methodist Church of Korea.]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태희 (2018).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강요: 입문자를 위한 쉬운설명 핵심정리**. 서울: 세움북스.
- [Kim, T. H (201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for the beginner*. Seoul: Seumbooks.]
- 김희영 (2021).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7, 377-414.

- [Kim, H. Y. (2021). A study on the role of Christianity and the educational direc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377-414.]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2019). **헌법(개정2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19). *Constitution*. 2nd revised edition.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2018). **헌법(개정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2018). *Constitution*. revised edition.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Press.]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1993a). **교리교육 지침서: 지도자용**.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93a). *Teaching Catechism: Teacher's guidebook*.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1993b). **교리교육 지침서: 평신도용**.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93b). *Teaching Catechism: Layperson's guidebook*.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국내선교부(통합) (2016a).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례자교재. 인도자용**.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Domestic Mission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16a). *For God so loved the world: Teacher's guidebook for baptism*.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국내선교부(통합) (2016b).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례자교재 평신도용**.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Domestic Mission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16b). *For God so loved the world: Student's guidebook for baptism*.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합동) (2018). **학습세례문답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Educational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2018). *Catechism for baptism*.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Pres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통합) (2021). **아동세례문답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Educational Resource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21). *Catechism for children's baptism*.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통합) (2018). **청플1(교역자, 교사, 학생) 교리 더하기: 하나님의 계획 알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Educational Resource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18). *Chungple1(3 vols. for pastor, teacher, student) doctrine plus: Knowing God's plan*.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통합) (2013). **알차고 쉬운 교리 구역교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Educational Resource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13). *Clear and easy Catechism book for a cell group ministry*.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통합) (2011). **만화로 보는 주기도문, 핵심교리문답 시리즈 2**.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Educational Resource Depart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11). *The Lord's prayer cartoons and comics: the core of Catechism (Vol.2)*.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박경수 (2019). **인물로 보는 종교개혁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Park, K. S. (2019). *Historical figures of the Reformation*.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 박양규 (2017). **청소년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2**. 서울: 새물결플러스.
- [Park, Y. K. (2017). *Heidelberg Catechism for teens (Vol.1 & Vol.2)*. Seoul: Holywaveplus.]
- 손달익 (2012). **소그룹 교리 소그룹 교리학교: 6주 완성 교리교육 프로젝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Son, D. I. (2012). *Doctrine for a small group and catechetical class for a small group: 6 weeks catechetical project*.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양금희 (2021). AI 시대의 영성적 가르침에 관한연구: “관상적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 11-48.
- [Yang, K. H. (2021). A study on spiritual teaching in the age of AI: Focused on “contemplative pedagog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11-48.]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Yang, K. H. (2011).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양금희 (1997). “교회의 교수사역으로서의 ‘케테키시스,’” **교회 전 사역의 교육적 접근에 관한 통전적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Yang, K. H. (1997). The catechisis as church’s educational ministry. *Holistic study on the whole ministry of the church*. Seoul: Research Institute of Christian Education i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유재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 [Yu, J. D. (2020).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3-37.]
- 이성웅 (2010). **헌법교리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Lee, S. W. (2010). *A Study on the doctrines in constitution*.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이성희 (2017).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상, 하)**. 경기: 흑곰북스.
[Lee, S. H. (2017). *A special lecture on Heidelberg Catechism (Vol.1 & Vol.2)*. Gyeonggi: Blackbear Books.]
- 이성희 (2014). **평신도를 위한 소요리문답**.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Lee, S. H. (2014). *Shorter Catechism for the laity*.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ress.]
- 이주호 · 정재영 · 정영식 (2021). **AI 교육 혁명**. 서울: 시원북스.
[Lee, J. H., & Jung, J. Y., & Jung, Y. S. (2021). *The educational revolution in the era of AI*. Seoul: Siwonbooks.]
- 이정규 외 4인 (2016). **예정원 어린이 교리교육의 이론과 실제, 1**. 서울: 예정원교회 교육연구원,
[Lee, J. K. et al. 4 (2016). *The children's catechesis: Theory & practice (Vol.1)*. Seoul: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Jesus Garden Church.]
- 임경근 (2015).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개정판)**. 서울: 나눔북스.
[Lim, K. K. (2015). *365 Family worship with Catechism (Rev. ed.)*. Seoul: Nanumbooks.]
- 장신근 (2020). 리차드 오스머의 기독교교육학 사상과 포스트 코로나 기독교교육에 대한 함의: 교수사역과 실천신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52-3**, 249-78.
[Jang, S. G. (2020) Christian educational thought of Richard Osmer and its implications for Post-Corona Christian education: Focusing on teaching ministry and practical theological approac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2-3*, 249-78.]
- 정설 (2015). **가슴 뛰는 교리교육 현장 보고서**. 서울: 지평서원.
[Jung, S. (2015). *Vital catechesis: Field report*. Seoul: Jipyung]
- 정두성 (2016).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세움북스.
[Jung, D. S. (2016). *The history of catechesis*. Seoul: Seumbooks]
- 정요석 (2015). **소요리문답, 삶을 읽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해설 (상)(하)**. 서

울: 새물결플러스.

[Jung, Y. S. (2015, 2016). *Shorter Catechism, reading life: Commentary on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Vol.1 & 2)*, Seoul: Holywaveplus.]

정준모 (2004). **칼빈의 교리교육론** 서울: 한들.

[Jung, J. M. (2004). *A study on John Calvin's Catechesis*. Seoul: Handul.]

최창수 (2017). **십대를 위한 소요리 성경공부, 기본교리 편**. 서울: 생명의 말씀사.

[Choi, C. S. (2017). *Shorter Catechism study for the teens: Basic doctrines*. Seoul: Lifebook Press.]

호태석 외 2인 (2015). **청지기 교리교육 강화훈련: 청지기 교리교육 3년(156주) 훈련 교재**. 서울: 쿤란출판사.

[Ho, T. S. (2015). *Catechesis for the servants: Guidebook for training*. Seoul: Qumran Press.]

홍원표 (2020). **칼뱅의 기독교강요로 배우는 기독교교리**. 서울: 동연.

[Hong, W. P. (2020). *Learning Catechism from Calvi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oul: Dongyeon Press.]

황신기 (2001).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싶어요: 아동교리설교** 서울: 영문.

[Hwang, S. G. (2001). *I want to know Christian truth: Doctrinal Sermon for the Children*. Seoul: Youngmun.]

황희상 (2013). **지금 시작하는 교리교육**. 서울: 지평서원.

[Hwang, H. S. (2013). *Catechesis starting now*. Seoul: Jipyung]

Fesko, J. (2021).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 공부의 중요성**.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저 2020 출판)

[Fesko, J. (2021). *The need for creeds today* (Yoon, S. I. Trans.). Seoul: Revival & Reformation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20)]

Gonzalez, J. (2019). **신학교육의 역사**. 김태형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저 2015 출판)

[Gonzalez, J. (2019). *The history of theological education* (Kim, T. H. Trans.).

- Seoul: Revival & Reformation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5)]
- Gospel Coalition & The Lidymar Presbyterian Church (복음연합·리디머장로교회)
(2018). **뉴시티 교리문답: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줄 52개 문답**. 서울:
조이선교회. (원저 2017 출판)
- [Gospel Coalition & The Lidymar Presbyterian Church. *New City Catechism: 52 Questions and Answers for Our Hearts and Minds*. Seoul: Joy Book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7)]
- Hall, D. (2020).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 부정신학의 눈으로 바라본 그리스도교**. 이
민희 역. 서울: 비아. (원저 2013 출판)
- [Hall, D. (2020). *What Christianity is not: An exercise in "Negative" Theology*
(Lee, M. H. Trans.). Seoul: Via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3)]
- Jang, S. G. (2021) Christian teaching as trinitarian kenotic praxis of love: A
practical the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ractical
Theology*, 25, 58 - 74.
- Johnson, T. (2015). **교리교육이 우리 아이를 살린다**. 김태곤 역. 서울: 생명의말씀
사. (원저 2013 출판)
- [Johnson, T. (2015). *Catechizing our children* (Kim, T. G. Trans.). Seoul:
Lifebook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3)]
- Luther, M. (2017). **대교리문답**. 최주훈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원저 2011 출판)
- [Luther, M. (2017). *Der Grosse Katechismus* (Choi, J. H. Trans.). Seoul:
Hismessage.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1)]
- Olson, R. (2021).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김의식 역. 서울: IVP. (원저 2013 출판)
- [Olson, R. (2021). *The journey of modern theology* (Kim, E. S. Trans.). Seoul:
IVP.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3)]
- Osmer, R. (2007).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신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원저 2005 출판)
- Osmer, R. (2005).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s* (Jang, S. G. Trans.).

-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5)]
- Provencher, D. (2020a). **예수님을 배워요 우리 아이 교리 첫걸음**. 생명의말씀사 편 집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저 2020 출판)
- [Provencher, D. (2020a). *Jesus* (Life Bible Editorial Department Trans.). Wheaton, IL: Crossway.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20)]
- Provencher, D. (2020b).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 아이 교리 첫걸음**. 생명의말씀사 편 집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저 2020 출판)
- [Provencher, D. (2020b). *God* (Life Bible Editorial Department Trans.). Wheaton, IL: Crossway.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20)]
- Provencher, D. (2020c). **복음을 배워요 우리 아이 교리 첫걸음**. 생명의말씀사 편집 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저 2020 출판)
- [Provencher, D. (2020c). *Gospel* (Life Bible Editorial Department Trans.). Wheaton, IL: Crossway.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20)]
- Sayers, D (2017). **도그마는 드라마다: 문학적 상상력과 교리의 재발견**. 홍병룡 역. 서울: IVP. (원저 2004 출판)
- [Sayers, D (2017). *Letter to a diminished church* (Hong, B. R. Trans.). Seoul: IVP.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4)]
- Smith, S. (ed.) (1965). *Horace Bushne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yken, D. (2012).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 교리문답 교육**. 김희정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저 2000 출판)
- [Van Dyken, D. (2012). *Rediscovering Catechism* (Kim, H. J. Trans.). Seoul: Revival & Reformation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0)]
- Ware, B. (2011).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교리교실**. 소울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저 2009 출판)
- [Ware, B. (2011). *Big truths for young hearts* (So, U. S. Trans.). Seoul: Revival & Reformation Pres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9)]
- Westerhoff, J. (1987). Formation, education, instruction. *Religious Education*.

82(4), 579-91.

Westerhoff, J. H., & Edwards, O. C. (1981). *A Faithful Church: Issues in the History of Catechesis*. Wilton: Morehouse-Barlow Co..

Wright, T. (2013).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원저 2012 출판)

[Wright, T. (2013). *How God became king* (Choi, H. M. Trans.). Seoul: Ecclesiabook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2)]

Abstract

Reconceptualization of Catechesis for Forming Holistic Faith

Shin-Geun Jang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essay aims to seek an alternative model of catechesis, as this form of education faces various challenges from the Korean Church especially during COVID-19 pandemic. For a long time, catechesis in the Korean Church narrowly focused on the act of producing Christians who would be loyal to the local church, rather than focusing on nurturing members loyal to Christ, an issue that has been problematized in recent publications on catechesis. Thus, the loss of social trust in the Korean Church and the decline of its public image exemplify how this type of catechesis as disciple-making for local church's benefit, mostly nurtures a vertical dimension of faith. The curr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mostly employs a unilateral transfer of doctrine from the teacher to the learner and emphasizes the memorization of doctrine. This type of instruction renders the catechesis as the most lackluster and outdated form of Christian education. This essay aims to reconceptualize the traditional model of catechesis. This essay first critically evaluates current situations of catechesis and presents several alternative meanings on the concept of doctrine. Then it explores the theories of catechesis through different models posed by Christian educators such as John Westerhoff III and Richard Osmer. The final section is devoted to presenting an alternative form of catechesis that focuses on seeking holistic faith.

《 **Keywords** 》

catechesis, doctrine, Kingdom of God, holistic faith, reconceptualiz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